

하였다. 그러나 cyclosporine A의 감량후 신속하게 회복되었다. 그밖에 위장장애 1례와 Herpes simplex 1례가 있었으며, 백혈구감소증이나 간기능검사의 이상은 없었다. 1례에서는 cyclosporine A 투여 10일 후 Azathioprine으로 바꾸었다. 결론적으로 가역성의 신독성이 문제가 되지만 혈중치를 측정하면서 소량의 cyclosporine A를 투여하면 조직형적합도가 떨어지는 이식신의 경우에도 그 효과가 우수하였다.

— 38 —

신이식에 있어서 Cyclosporine(Cs A)의 치료 경험

가톨릭의대 내과

윤영석 · 최의진 · 차병연

장윤식 · 이광우 · 손호영

강성구 · 방병기

Cs A은 1982년 Borel 등에 의해 신이식에 처음 사용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신이식 센터에서 그 성적과 합병증에 대하여 보고된 바 있다.

Cs A는 T-helper cell에서 lymphokine의 일종인 interleukin II의 분비를 차단시킴으로써 cytotoxic T-cell의 분화를 억제시켜 이식신의 거부반응을 막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.

P. Morris 등 여러 보고에 의하면 Cs A의 사용이래 이식신 생존율은 0~20% 증가되었으나, 신독성을 비롯한 여러 합병증이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. 이에 연구자들은 1984년 5월부터 가톨릭의대 부속 강남성모병원에서 신이식을 시행한 20례에 대한 Cs A의 시험례를 보고 하고자 한다.

1) Cs A를 사용한 20례 중 1례에서 급성거부반응 증세를 보이면서 지속적 경련 및 뇌증후군으로 사망했다. 3개월, 6개월, 및 1년 이식신 생존율은 각각 95%, 90% 및 85.7%였다.

2) Cs A의 독성에서는 다모증(55%), 고혈압(55%), 수전증(35%), 신독성(25%), 고칼리움혈증(20

%), 감염(15%), 간독성(5%), 경련(5%)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.

— 39 —

신이식 후 T세포, T세포 subset 및 B세포의 변동

경희의대 내과

남연호 · 우정택 · 박상훈

임천규 · 김명재

만성 신부전 환자들에서 세포성 면역의 장애가 있음은 많은 보고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, 또한 신이식 후 T세포 subset의 변동이 거부반응 또는 바이러스 감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.

이에 저자들은 신이식 후 중분자 물질 등의 뇨독제거와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일어나는 T세포 면역의 동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이식 환자 8명을 대상으로 말초혈액에서 T세포, T세포 subset 및 B세포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) 대상환자들은 신이식 후 평균 27개월 추시후 재혈하였으며, 혈청 크레아티닌치는 평균 1.68 ± 0.67 mg/dl이었다.

2) T세포 비율은 $60.0 \pm 7.7\%$, 보조 T세포는 $23.7 \pm 9.3\%$ 로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($p < 0.005$), 만성 신부전 환자 대조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3) 억제 T세포는 $6.5 \pm 2.9\%$ 로서, 보조 T세포와 억제 T세포의 비는 5.5 ± 6.4 로서 정상 대조군과 만성 신부전 환자 대조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4) B세포는 $7.0 \pm 2.9\%$ 로서 정상 대조군과 만성 신부전 환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로 감소하였다 ($p < 0.005$).

결론적으로 신이식 후의 환자군에서의 세포성 면역는 만성 신부전 환자군에 비해 유의한 개선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, 이는 면역억제요법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었다.